

성인 여성의 체형에 따른 기성복 적합성에 관한 연구*

Fit of Ready-to-Wear Apparel for Adult Women by Somatotype*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부 의상전공
조교수 이진희

Dept. of Clothing, Wonkwa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Jin-Hee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논의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suitability of ready-to-wear apparels for adult women by considering their body types. 341 women aged from 20 to 60 were surveyed for this study. The survey was taken from November, 1999 through November, 2000.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4 groups(thin, normal young aged, normal middle aged, fat) according to BMI and Rohrer index.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rosstabs, F-test, Duncan-test were used.

As the result, it is our findings that, in purchasing clothes, especially in case of pants, people choose them mostly based on waist and hip. However, in that the normal young aged group bases thigh circumference, we need to consider such points. As for one-piece, height was an important factor, while chest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fat group. In relation to the suitability of ready-to-wear garments, the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for blouses, one-pieces, and jackets, respectively. Blouses didn't fit 29.8% of the fat group, and one pieces fitted thin or normal subjects to some extent. However, one pieces didn't fit 34% of the fat group while jackets didn't fit 51.4% of them. This result shows that there are difficulties in choosing clothes dependent on body types.

주제어(Key Words): 적합성(fit), 기성복(ready-to-wear), 체형(somatotype)

Corresponding Author: Jin-Hee Lee, Dept. of Clothing, College of Human Environment Sciences, Wonkwang University, 344-2, ShinYong-Dong, Iksan-City, Chunbuk 570-754, Korea Tel : 82-63-850-6647 Fax : 82-63-850-7301 E-mail : jinhee@wonkwang.ac.kr

* 본 논문은 2002년 원광대학교 교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I. 서론

현대의 빠른 라이프 스타일은 의복구입에 있어서 맞춤의 형태보다는 기성복을 구입하여 입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령에 따른 브랜드의 세분화가 되면서 소품종 대량 생산의 형태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의 생산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가 반영되어 생산 형태를 바꾸면서 다양한 브랜드의 출현은 각 연령층의 특성 및 취향을 반영하고, 치수도 같은 치수지만 업체에 따라 대상에 따라 그 치수 내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기성복 산업에 있어서 브랜드의 세분화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의복을 생산하고 적합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의류산업은 소비자의 기대에 대해 전략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며, 질 좋은 상품을 일관성 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의복 구매과정에서 나타난 소비자 불만은 비교적 불만족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지혜경, 이은영, 1995),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이상적인 신체상의 중요성은 각각의 모든 의복추구혜택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반면 신체 만족도의 경우 특정 부위에 대한 신체 만족이 특정 의복추구혜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진숙, 1998). 또한 성인 여성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체형변화를 의복으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복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정삼호, 198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의 다양한 체형을 크게 키와 몸무게 변인을 이용한 지수치(Rohrer, BMI)로 체형을 분류하고, 각 체형에 따른 기성복 적합성을 설문지를 통해 알아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기성복 업체에 참고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방법

조사 방법은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예비실험을 통해 체형별 기성복 적합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20세에서 60세 체형별 피험자들 89명에게 준비된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여 설문지의 문항 및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요구사항 및 불만 사항을 조사하여 문항내용에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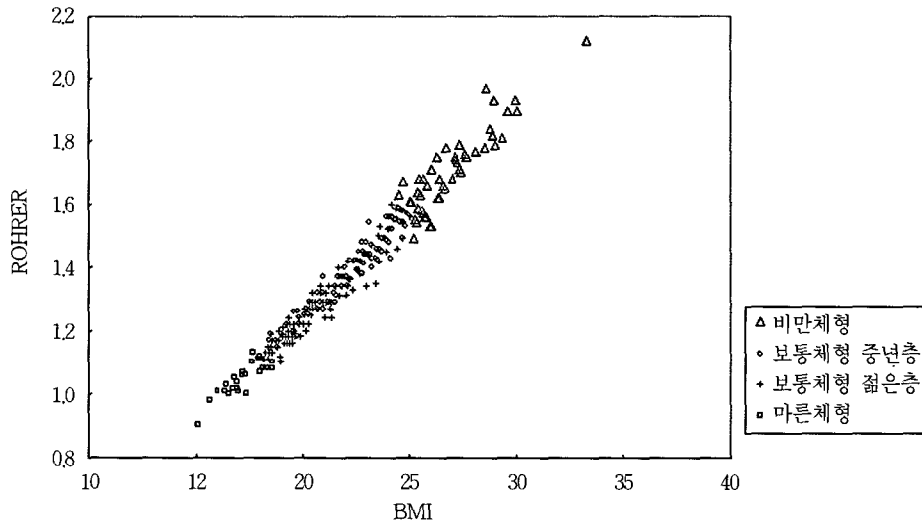
본 설문조사에서의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사항 8 문항, 치수에 관련된 문항 8문항, 기성복 착용시의 착용감에 관한 문항 20문항의 총 36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치수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자신의 신체 치수 5항목(신장, 체중,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은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여 결과를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420부를 사용하였으나 회수되지 못한 것과 자료가 미비한 것을 제외한 341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2.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연구대상은 20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 여성 34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1999년 11월에서 2000년 11월까지 서울, 전주 및 익산지역에서 실시하였다.

3. 연구대상 구분

성인 여성의 체형을 Rohrer지수와 BMI를 기준으로 마른체형, 표준체형, 비만체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체형에 따른 Rohrer지수와 BMI의 관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마른체형은 Rohrer지수 1.1이하 BMI 18이하로 하였으며, 보통체형은 Rohrer지수 1.2~1.5 사이 BMI 19~24사이로 하였으며, 보통 체형의 경우 젊은층과 중년층을 33세 전후로 구분하였는데, 이것은 선행연구(이진희 외 3인, 1994)에서 18세에서 51세의 성인 여성 1336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집단분리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 연령을 구분(18세-33



<그림 1> 체형구분

<표 1> 체형구분에 따른 빈도 및 백분율 단위: 명

체형구분		빈도	%
마른체형		37	12.2
보통체형	젊은층	130	42.8
	중년층	93	30.6
비만체형		44	14.5
계		304	100.0

세, 34세-51세)한 것을 고려하여 보통체형은 2그룹(젊은층: 20-33세, 중년층: 34-59세)으로 구분하였다. 체형구분 및 연령구분에 따른 인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표 1). 비만 체형의 경우 Rohrer지수 1.6이상, BMI 25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4. 자료분석

설문지는 420부를 사용하였으나 회수되지 못한 것과 자료가 미비한 것을 제외한 341부가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처리는 SPSS Win 10.0을 이용하였으며,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값의 기본 통계량과 분산분석, 교차분석, 사후분석으로 Duncan-Test가 사용되었다.

III. 결과 및 논의

1. 체형별 기성복 적합성

1) 체형별 신체치수의 기초통계치

체형에 따른 신체치수를 <표 2>에 나타내었다. 5개의 신체항목과 2개의 지수치에서 체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마른 체형의 경우 키에서는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으며, 허리둘레에서는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어 보통체형의 젊은층보다도 7.2cm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른 체형의 경우 키도 크고,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가 모두 작은 일자형 체형을 나타내어 굴곡이 있는 보통 체형의 젊은층과는 다른 체형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몸무게의 경우 비만 체형의 최소값은 마른 체형의 최대값과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BMI, Rohrer 지수의 경우 비만체형의 평균값이 각각 26.8, 1.7을 나타내어 비만 기준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체형별 신체치수의 분산분석

단위: cm

신체부위	체형	연령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F값	다중비교
키	마른체형		163.3	4.3	173	156.0	16.8***	비만<보통<마른
	보통체형	젊은층	161.6	3.9	173	151		
		중년층	159.9	3.4	168	150		
	비만체형		157.9	5.3	170	145		
가슴둘레	마른체형		79.9	4.0	92	72	48.6***	마른<보통<젊은<보통<중년<비만
	보통체형	젊은층	86.1	5.6	101.6	75		
		중년층	89.9	6.6	110.0	78		
	비만체형		96.1	6.8	111.8	80		
허리둘레	마른체형		62.8	3.8	71.1	55.3	92.9***	마른<보통<젊은<보통<중년<비만
	보통체형	젊은층	70.0	4.5	82.0	60.0		
		중년층	75.0	7.0	115.0	63.5		
	비만체형		82.0	5.7	101.6	72.0		
엉덩이둘레	마른체형		86.7	3.1	92.0	80.0	32.7***	마른<보통<젊은<보통<중년<비만
	보통체형	젊은층	92.7	5.3	106.0	76.2		
		중년층	95.3	6.0	120.0	83.8		
	비만체형		100.7	5.8	111.8	90.0		
뱀무게	마른체형		46.2	3.7	55.0	40.0	138.5***	마른<보통<젊은<보통<중년<비만
	보통체형	젊은층	54.4	5.2	70.0	45.0		
		중년층	57.0	4.9	68.0	45.0		
	비만체형		67.0	5.7	82.0	54.0		
BMI	마른체형		17.3	0.8	18.6	15.1	262.3***	마른<보통<젊은<보통<중년<비만
	보통체형	젊은층	20.9	1.8	25.0	18.1		
		중년층	22.3	1.8	25.0	18.4		
	비만체형		26.8	1.7	33.3	24.4		
Rohrer	마른체형		1.1	0.6	1.1	0.9	260.7***	마른<보통<젊은<보통<중년<비만
	보통체형	젊은층	1.3	0.1	1.6	1.1		
		중년층	1.4	0.1	1.6	1.2		
	비만체형		1.7	0.2	2.1	1.5		

(* p< .05, ** p< .01, *** p< .001)

2) 기성복의 치수 만족도

체형별 기성복 치수 만족도에 대한 설문은 '잘맞는다(1)'에서 '잘안맞는다(5)'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를 〈표 3〉에서 보면, 체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비만 체형의 경우 '그저그렇다(3)'로 응답하였으며, 마른체형이나 보

통체형의 젊은층도 '그저그렇다'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보통 중년층의 경우는 '맞는다'로 응답하여 많은 중년 보통 체형의 여성들은 기성복에 대한 적합성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만 체형의 경우 기성복의 치수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체형을 반영한 기성복 전문 브랜드의

<표 3> 기성복 치수의 만족도

체형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다중비교	
마른체형	2.7	0.9	12.2***	보통중년<마른=보통젊은<비만	
보통체형	젊은층	2.6			0.8
	중년층	2.3			0.9
비만체형	3.2	1.2			

(* p< .05, ** p< .01, *** p< .001)

신설을 통하여 보다 적합성이 높은 의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치수부재시의 의복 선택

의복 구입시 맞는 치수가 없는 경우의 의복선택에 대한 결과를 보면<표 4>, 보통체형의 경우 대부분 '안 산다' 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 치수 큰 것을 산다' 고 응답한 경우도 45%를 차지해 주목할 만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통체형의 젊은층에서는 한 치수 작은 것을 구입하는 경우도 13%를 차지해 일부 젊은층에서는 자신의 몸을 옷에 맞추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안 사는 경우는 53.4%를 나타내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사는 경우도 46.6%를 나타내 기성복 업체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수선경험

의복 구입시 의복의 수선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체형별로 살펴본 결과<표 5>, 체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마른 체형의 경우 '가끔있다'가 44.9%를 나타내었으며, 보통체형의 젊은층에서는 '거의없다'가 42.9%를 나타내어 비교적 기성복이 잘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체형의 중년층의 경

<표 4> 치수부재시의 치수선택

단위: % (N)

체형구분	치수선택	안 산다	한 치수 큰 것을 산다	한 치수 작은 것을 산다	계
마른체형		65.7(23)	28.6(10)	5.7(2)	100(35)
보통체형	젊은층	53.9(69)	32.8(42)	13.3(17)	100(128)
	중년층	55.9(52)	38.7(36)	5.4(5)	100(93)
비만체형		40.9(18)	50.0(22)	9.1(4)	100(44)
계		54.0(162)	36.7(110)	9.3(28)	100(300)

<표 5> 수선경험

단위: % (N)

체형구분	경험정도	많다	가끔있다	거의없다	계	χ^2 9.5***
마른체형		21.1(8)	55.3(21)	18.4(7)	100(38)	
보통체형	젊은층	5.7(8)	50.7(71)	42.9(60)	100(140)	
	중년층	17.0(17)	69.0(69)	14.0(14)	100(100)	
비만체형		32.7(16)	44.9(22)	22.4(11)	100(49)	
계		15.0(49)	56.0(183)	28.1(92)	100(327)	

(* p< .05, ** p< .01, *** p< .001)

우에도 '가끔있다'가 69%를 나타내 수선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비만체형의 경우에는 수선을 의뢰한 경험이 있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78%를 나타내어 많은 경우에 수선을 해야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만 체형의 경우 체형을 반영한 의복 선택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체형에 따른 의복 품목별 기성복 적합성

1) 의복 품목별 구입시 기준으로 하는 신체부위

각 의복 품목별 의복 구입시 기준으로 삼는 신체부위를 살펴본 결과, 각각의 의복 품목에 있어서 체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하의류에서는 요즘 여성들이 대부분이 바지를 주로 착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바지와 상하의 한 벌 옷으로 원피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바지의 경우 마른 체형에서<표 6>, 바지 구입 시 기준으로 하는 신체치수는 엉덩이둘레가 56.3%를 나타내었으며, 허리둘레도 31.3%를 나타내었다.

보통체형의 젊은층에서는 엉덩이둘레가 36.4%를 나타내었으며, 허리둘레, 넓적다리둘레가 각각

29.5%, 24.0%를 나타내 비슷한 수준으로 바지 구입시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준체형의 중년층이나 비만체형에서는 엉덩이둘레나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바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장은 바지 구입시 신체기준으로의 반영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행 바지의 제품치수 표시에서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표시가 적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통체형의 젊은층에서의 넓적다리둘레가 구입시 신체기준으로 허리둘레와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피스의 경우<표 7>, 체형별로 신장을 기준으로 하는 비율이 마른체형, 보통체형의 젊은층, 보통체형의 중년층, 비만체형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보통체형의 중년층에서는 신장 다음으로 가슴둘레와 허리둘레도 구입 기준으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신장 다음으로 중요한 신체기준이 되고 있다. 비만체형의 경우는 다른 체형과는 달리 신장보다 가슴둘레를 가장 중요한 구입 선택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보통체형의 중년층과 비만체형의 경우 품이 맞지 않아 구입을

<표 6> 바지 구입시 선택 기준부위

단위: %(N)

체형구분	신체부위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	넓적다리둘레	계
마른체형		0	31.3(10)	56.3(18)	9.4(3)	3.1(1)	100(32)
보통체형	젊은층	0.8(1)	29.5(38)	36.4(47)	9.3(12)	24.0(31)	100(129)
	중년층	1.3(1)	32.9(25)	52.6(40)	6.6(5)	6.6(5)	100(76)
비만체형		0	32.6(14)	51.2(22)	2.3(1)	14.0(6)	100(43)
계		0.7(2)	31.1(87)	45.4(127)	7.5(21)	15.4(43)	100(280)

<표 7> 원피스 구입시 선택 기준부위

단위: %(N)

체형구분	신체부위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	넓적다리둘레	계
마른체형		3.6(1)	10.7(3)	64.3(18)	0	100(28)
보통체형	젊은층	5.6(6)	15.7(17)	56.5(61)	1.9(2)	100(108)
	중년층	25.0(16)	12.5(8)	35.9(23)	1.6(1)	100(64)
비만체형		17.4(4)	8.7(2)	34.8(8)	0	100(23)
계		12.1(27)	13.5(30)	49.3(110)	1.3(3)	100(223)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의가 포함된 의복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2) 의복 품목별 기성복 적합성

체형별 의복 품목(블라우스, 티셔츠, 스커트, 바지, 원피스, 재킷)에 따른 의복 맞춤새에 대해 분석한 결과, 체형별로 차이를 나타낸 품목은 블라우스, 원피스, 재킷에 대해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우스의 경우<표 8>, 마른체형이나 보통체형에서는 40%이상이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만체형의 경우 29.8%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잘 맞지 않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가 잘 맞지 않는지를 살펴본 결과<표 9>, '크다(1)'에서 '작다(5)'까지 5점 척도에서 비만체형의 경우, 품에서 약간 작게 나타났다으며, 소매통, 진동둘레도 3.5로 약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에서는 마른체형의 경우 약간

<표 8> 체형별 블라우스의 적합성

단위: %(N)

체형구분	맞음새	잘맞는다	맞는다	보통이다	안맞는다	잘안맞는다	계	χ^2
마른체형		10.5(4)	47.4(18)	26.3(10)	15.8(6)		100(38)	14.8***
보통체형	젊은층	13.8(18)	26.9(35)	43.8(57)	12.3(16)	3.1(4)	100(130)	
	중년층	37.6(38)	27.7(28)	28.7(29)	5.0(5)	10.1(1)	100(101)	
비만체형		8.5(4)	25.5(12)	36.2(17)	25.5(12)	4.3(2)	100(47)	
계		20.3(64)	29.4(93)	35.8(113)	12.3(39)	2.2(7)	100(316)	

(* p< .05, ** p< .01, *** p< .001)

<표 9> 체형에 따른 블라우스 부위별 적합성

단위: %(N)

의복부위	체형		보통체형 젊은층		보통체형 중년층		비만체형		F값	다중비교
	마른체형	비만체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품	2.4	0.9	3.1	0.7	3.1	0.8	3.5	1.2	8.8***	마른<보통젊은=보통중년>(비만)
어깨너비	2.6	0.8	3.1	0.8	3.0	1.3	3.1	1.3	3.0**	마른<보통젊은=비만>-보통중년
허리둘레	2.4	0.9	3.0	0.7	3.1	0.7	3.3	1.1	8.7***	마른<보통젊은>(보통중년=비만)
소매통	2.6	0.6	3.1	0.7	3.2	0.7	3.5	0.9	9.2***	마른<보통젊은=보통중년>(비만)
진동둘레	2.6	0.6	3.2	0.6	3.1	0.7	3.5	1.0	8.5***	마른<보통중년=보통젊은>(비만)

(* p< .05, ** p< .01, *** p< .001)

<표 10> 체형별 원피스의 적합성

단위: %(N)

체형구분	맞음새	잘맞는다	맞는다	보통이다	안맞는다	잘안맞는다	계	χ^2
마른체형		10.5(4)	39.5(15)	36.8(14)	10.5(4)	2.6(1)	100(38)	29.9**
보통체형	젊은층	13.6(18)	28.8(38)	38.6(51)	15.2(20)	3.8(5)	100(132)	
	중년층	22.2(22)	34.0(34)	41.0(41)	2.0(2)	0.8(1)	100(100)	
비만체형		15.9(7)	18.2(8)	31.8(14)	29.5(13)	4.5(2)	100(44)	
계		16.2(51)	30.3(95)	38.2(120)	12.4(39)	2.9(9)	100(314)	

(* p< .05, ** p< .01, *** p< .001)

〈표 11〉 체형별 원피스의 부위별 맞는 정도

단위: %(N)

의복부위	체형		보통체형		보통체형		비만체형		F값	다중비교
	마른체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품	2.5	0.8	3.1	0.6	3.1	0.8	3.5	1.2	10.6***	마른<보통젊은=보통중년<비만
허리둘레	2.4	0.8	2.9	0.5	3.1	0.6	3.6	1.1	15.7***	마른<보통젊은=보통중년<비만
진동둘레	2.8	0.7	3.1	0.4	3.2	0.6	3.4	0.9	6.4***	마른<보통젊은=보통중년<비만
엉덩이둘레	2.8	0.6	3.1	0.6	3.3	0.5	3.5	1.0	5.6*	마른<보통중년=보통젊은<비만
넓적다리둘레	2.8	0.5	3.2	0.5	3.2	0.5	3.3	1.0	5.0*	마른<보통중년=보통젊은<비만

(* p< .05, ** p< .01, *** p< .001)

〈표 12〉 체형별 재킷의 적합성

단위: %(N)

체형구분	맞는정도	잘맞는다	맞는다	보통이다	안맞는다	잘안맞는다	계	χ^2
마른체형		10.8(4)	32.4(12)	35.1(13)	18.9(7)	2.7(1)	100(37)	33.3**
보통체형	젊은층	10.9(13)	28.6(34)	47.9(57)	10.1(12)	2.5(3)	100(119)	
	중년층	16.0(15)	27.7(26)	39.4(37)	12.8(12)	4.3(4)	100(94)	
비만체형		5.7(2)	8.6(3)	34.3(12)	34.3(12)	17.1(6)	100(35)	
계		11.9(34)	26.3(75)	41.8(119)	15.1(43)	4.9(14)	100(285)	

(* p< .05, ** p< .01, *** p< .001)

큰 것으로 나타나 체형간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어깨너비에서는 비교적 모든 체형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진동둘레나 소매통에 있어서는 체형간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원피스의 경우(표 10), 마른체형의 경우 맞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50%로 나타났으며, 보통체형의 경우 젊은층, 중년층 모두 맞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42.2%, 56.2%를 나타냈으나 비만체형의 경우 맞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34%를 나타내어 원피스의 경우도 체형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표 11), 비만체형에 있어서 품, 허리둘레, 진동둘레, 엉덩이둘레, 넓적다리둘레 등이 모두 약간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마른 체형의 경우는 특히 허리부위가 약간 크다고 응답하여 허리부위는 비만체형이나 마른체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위임을 알 수 있다.

체형에 따른 재킷의 맞춤새에 대한 결과로(표 12), 체형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른 체형의 경우 대부분 비교적 잘 맞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보통 체형의 경우 젊은층에서는 맞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39.5%를 나타내고, 중년층에서 43.7%를 나타내어 젊은층보다 중년층의 경우가 기성복 재킷의 맞춤새가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보통체형의 중년 여성을 위한 브랜드 개발에 의한 다양한 디자인 개발과 치수 개선에 의한 성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비만 여성의 경우 51.4%가 맞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재킷 역시 다른 의류 품목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의복 치수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성인 여성의 체형을 분류하여 체형에 따른 기성복의 적합성을 분석한 것으로 체형분류의 기준으로는 Rohrer Index와 BMI를 이용하였으며, 총 34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체형별 신체치수의 분석 결과 마른 체형의 경우 보통 여성의 젊은층과는 달리 키가 크고,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가 작은 일자형의 체형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2. 수선 의뢰 경험에서는 비만 체형의 경우 32.7%가 '많다'고 응답하여 체형을 고려 한 의복 선택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의복 품목별 구입 시 신체 기준 선택부위는 바지의 경우 대부분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보통 체형의 젊은 층에서는 넓적다리둘레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피스의 경우 신장이 중요한 신체 부위였으나, 비만체형에서는 가슴둘레가 가장 중요한 구입 선택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4. 의복 품목별 기성복 적합성에서는 블라우스, 원피스, 재킷에서 체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블라우스에서는 경우 비만 체형의 경우 29.8%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피스에서는 마른체형이나 보통체형의 경우 비교적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만 체형의 경우 34%, 재킷에서는 51.4%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체형을 고려한 의복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체형구분에 따른 빈도의 차이를 좀 더 긴 조사 기간을 통해 확보하지 못하여 확대 해석에는 유의해야하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신체 사이즈와 선택하는 의복 품목별 제품 사이즈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올바른 사이즈 선택 및 제품의 여유분을 의복 품목별로 비교 조사하는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공민희(1982). 성인여자 기성복 치수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화(1996). 미국내 아시아여성들의 기성복에 대한 맞춤새 인지도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7(1).
 김양원(1999). 여성용 기성복에 대한 적합성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8(1).

김희영(1998). 노년 남성의 의복착용 실태조사 - 체형변화와 기성복 만족도를 중심으로 - 한국 의류학회지, 22(2), 193-202.
 민동원(1986). 기성복 구매 및 사용시 불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4(1), 3-12.
 박상희(1994). 중년기 여성 기성복의 신체적합성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선명(1997). 여성기성복 소비자의 의복 만족도에 관한 연구. 복식, 35, 167-180.
 이진희, 최혜선, 박수찬, 김진호(1994). 성인여성 기성복 치수 간격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 공학회지, 13(1), 59-74.
 정삼호(1988). 성인여성의 의복 디자인 선호도와 의복 태도에 관한 연구-신체적 조건을 중심으로-. 가정문화논총, 2, 61-83.
 정재은, 남윤자(1999). 20대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이상형(理想型)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1), 159-169.
 정홍숙, 정삼호(1990). 성인 여성의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와 체형 및 연령과의 관계. 가정문화논총, 14, 중앙대학교 가정문화연구소.
 조선일보(2000. 10. 18.). AIDS보다 무서운 비만.
 중앙일보(2000. 10. 4.). 한국인 비만 기준 재정립.
 高橋武則/楊國林(1990). 質問紙調査の計劃と解析. 文化出版局.
 Goldsberry, E., Shim, S., & Reich, N. (1996). Women 55 Year and Older: Part II- Overall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fit of ready-to-wear.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4(2).
 Lenda Jo Connell, Evelyn Brannon, Pamela Ulrich, Ann B.P. (2001). Exploring Female Consumers' Fit Preferences: An Application of Focus Group Methodology, 2001 SEOUL KSCT/ITAA Joint World conference Proceedings, 88.
 Labat, K. L. & Delong, M. (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9(2), 43-48.

(2002년 10월 25일 접수, 2002년 12월 16일 채택)